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위

노영상(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I. 신학의 학문성

- 가. 본 글의 목적과 연구방법
- 나. 학문의 성립 조건
- 다. 신학의 학문성

II.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성과 학문적 정의

- 가.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적 정의
- 나. “기독교”윤리학이 공적인 장에서 통용되기 위한 노력

III.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특성

- 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윤리학(personal ethics)과 사회윤리학(social ethics)
- 나.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특성

IV.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위

- 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잡한 환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 나. 한국적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구상

V. 결론: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에 대한 학문적 정위를 위한 개념 정의

• **ABSTRACT** •

In this paper, I explored how we would define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rightly.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essential conditions of scholarship, firstly. After I referred six conditions of scholarship, I showed a learning as the-ology satisfied those conditions. Secondly, I examined the scholarship of Christian ethics, using the definition of Christian ethics by James M. Gustafson. Thirdly, this paper explained social ethics, distinguished from personal ethics. Especially, I said Christian ethicists had developed the inquiry of social ethics in advance of the philosophical ethicists.

In conclusion, I defined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by line as followings.: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is a study, having both sides of faith and ration-ality, done by the research groups such as professional Christian social ethical scholars with its own ethical methodology, which analyzes Korean social sit-uations different from the west by the tool of social sciences, refl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social structure and social institutions,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transforming society not to be solved in the field of personal ethics, with faith and theology adjusted in a Korean point of view, in the perspective of the Bible and doctrinal traditions emphasizing human sociality, investigates the social ethical practices, tunes up different views of practices among various denominations, makes a public consensus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people outside of church, decides on the contents of ministerial and social prac-tices with his own social responsibility, and evaluates the results follow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Key Words :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personal ethics, social ethics, scholarship, methodology of Christian social ethics

I. 신학의 학문성

1. 본 글의 목적과 연구방법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정위를 위해,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글에선 이 주제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만을 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정의를 하기 위해 필자는 본 논문의 전개 순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먼저는 학문성이란 단어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성 문제를 서술하였다. 윤리학이 학문적이라는 것엔 의심이 없겠으나, 기독교 윤리학이 보편적 학문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의엔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의가 전제된다. 다음으로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기독교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정의된다고 할 때, 기독교 “사회”윤리학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사회윤리학”의 상대 개념으로 우리는 보통 “개인윤리학”을 생각한다. 개인윤리학의 영역과는 다른 사회윤리학의 독특한 위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의를 하였다. 기독교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 당연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도 학문적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이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의 기독교윤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서구와 다른 오늘의 한국사회가 요청하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방향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2. 학문의 성립 조건

먼저 학문의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무엇이 학문이고 무엇

이 학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가 위험하다는 신문의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학문적 진술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글이 있다면, 그 글은 학문적이라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학문이 되려면 그 내용이 논증적인 진술(statement)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 논증이 이해될 수 없는 허위의 논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학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이 학문적이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가해성(intelligibility)을 구비해야 한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 보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의 논증이라면 학문이기 어렵다. 그 내용이 한 부류의 종교인들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다른 종교의 종교인에게 수락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보편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이 학문적 성격을 지니려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공공의 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이 공공의 장에서의 논의를 포기한다면, 종교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 학문의 영역으로 취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기독교신학이 학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이 주장한다면 이 글의 전개는 소용없는 일이 된다. 다음으로 학문성이 성립되려면 하나의 응집(coherence)된 주제가 가져야 한다. 심리학은 심리학 나름의 연구영역이 있으며, 인류학은 인류학의 특징적인 범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이 나름의 특징적인 연구 범위를 갖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¹⁾ 다음으로 학문성을 갖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곧 나름의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론을 갖지 못한다면, 그 연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더 나아가 학문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들이 오늘의

1) Wolfhard Pannenberg,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rans. by Francis McDonag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265~276. 판넨베르크와 솔츠(Heinrich Scholz)와의 논쟁을 참조함.

인간 경험에 적합한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적합성(adequacy)으로서의 적용가능성과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논의들을 학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심리학적인 연구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현장의 입장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내용을 학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의 요건은 그 영역의 주제에 집중하는 연구집단(research group)이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로는 어느 학문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그 독특한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연구 집단이 없다면, 그것을 학문의 영역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문성이 성립되기 위해선, ① 명제적 진술(statement)이어야 할 것, ② 가해성(intelligibility)의 문제, ③ 주제의 응집성(coherence)의 요건, ④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의 장착, ⑤ 경험에의 적합성(adequacy), ⑥ 연구집단(research group)의 형성 등 여섯 가지 기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3. 신학의 학문성

신학이 과연 학문적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명제적 진술이어야 할 것, 가해성의 문제, 주제의 응집성, 연구방법론의 장착, 경험에의 적합성, 연구집단의 형성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보았다.

1) 신학적인 논의들은 과연 명제적 진술들인가?

명제적 진술들은 진위판단이 가능한 진술들을 말한다. 이에 있어 신학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논의는 진위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신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신의 존재를 확연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에 대한 논의들을 명제적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말은 일방적이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증명하여, 그것이 실재한다고 말하는 것인지를 재고해보아야 한다. 오늘의 과학자들은 양자(quantum)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그 양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하여 확인할 수도 없는 실재이다. 그와 같이 가시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허위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실재를 인정해야 하는 많은 실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을 비학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²⁾

2) 신학적 언술들의 가해성 문제

성경과 신학적인 논의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학자 티리히(Paul Tillich)의 계시와 이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 티리히는 그의 신학적 방법론인 상관관계(correlation)의 방법을 채용한다. 인간 이성(reason)의 한계에 대한 답변이 계시(revelation)라고 말하였다.

인간의 지적인 인식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갖는다. 주관과 객관의 측면이다. 객체화된 앎의 대상과 그 객체적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인식을 위해선 먼저 객체와 주체 사이의 분리가 요청된다. 하지만 진정한 인식은 이런 분리가 다시 존재론적(ontological)으로 재결합(reunion)될 때 가능함을 티리히는 강조한다. 주체와 객체의 만남에서 진정한 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주체와 객체의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계시이다. 계시는 객체적 대상이 주체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서, 깊은 만남을 가능케 한다. 곧 주체가 객체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2) Alister E. McGrath, *Science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9), 67에서의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에 대한 논의를 참조.

주는 것이다. 이런 계시의 차원이 없다면 인간은 진정한 인식이나 이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탈리히에게 있어 계시는 이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인식에 답변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에 근거하여 전개되는 기독교의 신학은 이성과 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성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신학적 진술들은 반이성적이거나 불가해한 논의들이 아니며, 지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바 학문성을 지니고 있음을 탈리히는 말한 것이다.³⁾

3) 주제의 응집성의 문제

자연과학은 크게 자연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인문과학은 인간을 사회과학은 사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그러면 신학의 특정한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신학을 영어로 “theology”로 표현한다. theos+logos가 결합된 말이다.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신학은 뚜렷한 연구 주제를 갖는다. “신”이라는 주제이다. 신학은 무엇보다 신에 대해서 말하고, 신의 계시에 집중하며, 신의 명령에 따름을 강조한다.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신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질문은 앞의 가해성의 요건과 연관된다.

3)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71~162. 시카고대학의 트레이시(David Tracy)는 그의 책, David Tracy, *Bl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에서 탈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을 비판적 상관관계(critical correlation)의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트레이시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합리성, 곧 신학의 계시적 차원과 인간 경험의 차원을 둘 다 포괄하면서 수정주의(revisionism)의 입장을 전개하였다. 그는 인간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와의 비판적 상관관계(critical correlation)를 강조하였다.

4) 연구 방법론의 장착

신학은 나름의 연구방법론을 가진다. 물론 신학자 나름의 신학서론적인 연구 방법론이 있겠으나, 크게는 계시에 근거한 연구 방법론을 신학은 채택하고 있다. 신학자에 따라 당대의 철학적 방법론이 자신의 신학적 연구의 방법론으로 응용되기도 하지만, 그런 철학적 방법론 배후에서 모든 신학은 계시에 의존한 나름의 방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이 없다면 신학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신의 계시가 없다면 신학은 구체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5) 경험에의 적합성

경험에 적합하지 않다면 학문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시카고대학교의 트레이시(David Tracy)는 기독교 전승에 대한 적절한(appropriate) 해석과, 그 해석이 인간의 경험에 적합한가(adequate)를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신학방법을 구성한다고 하였다.⁴⁾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정돈되고 풍성하게 된다. 신학은 우리의 삶에 적합한 내용으로 나름의 학문성을 갖는 것이다.

6) 연구집단의 형성

신학분야에는 일정한 연구집단이 결성되어 있다. 신학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은 바, 그간 역사를 걸쳐 많은 학자들이 신학적 연구에 전념하여

4) David Tracy, *Blessed Rage for Order*, 15.

왔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도 신학에 대한 연구에 헌신하는 그룹이 작지 않다. 연구집단의 형성이 학문성의 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학은 그 면에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성과 학문적 정의

1.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적 정의

도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는 반면, 윤리는 그 도덕에 대한 이차적인 반성에서 나온 이론적인 것이다. 머클렌던(James Wm, McClendon, Jr.)은 다음과 같이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였다. 그 윤리와 도덕은 이론과 실천으로 연결된다. 윤리는 도덕에 대한 연구이며, 도덕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덕과 사악에 대한 관심에서 조망된 인간의 현실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윤리는 도덕, 곧 행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이론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기독교윤리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⁵⁾ 도덕이 행동 그 자체를 다룬다면, 윤리는 그 행동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어떤 도덕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재정의 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는 도덕에 대한 학문(the science of morality)이라 할 수 있다. 스타프(Henry Stob)은 이러한 윤리의 영역을 셋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이며 인격적인(personal) 영역과 인간 상호간의(interpersonal) 관계에서 야기되는 영역 및 사회적인(social) 영역의 세 부분이다.⁶⁾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바는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성과 학문적

5) James Wm. McClendon, Jr., *Systematic Theology: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28~29.

6) Henry Stob, *Ethical Refle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8), 3~6.

정의이다. 학문성이 없다면 학문적인 정의도 내릴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신학이 학문적임을 확인하였다. 신학이 학문적이라면 기독교윤리학도 당연히 학문적이다. 개신교회의 기독교윤리학은 가톨릭에서 도덕신학(moral theology)이나 윤리신학(ethical theology)으로 지칭된다. 미국의 윤리학자 거스탑슨은 기독교윤리학을 다음과 같이 학문적으로 정의하였다. “기독교윤리학은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을 설명하며, 그것으로부터 기독교 공동체와 그것에 속한 자들의 행동을 위한 규범적인 추론을 이끌어 내는 지성적인 학문이다. 그것의 실제적인 중요성은 그 공동체와 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며 요구하시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⁷⁾

위의 정의에서와 같이 기독교윤리학은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것에서 윤리적 규범을 찾아내는 것이다. 일반윤리학에선 인간의 본성에서 윤리적 선의 내용과 윤리적 규범을 추론하지만, 기독교윤리학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행동을 위한 규범을 정한다. 윤리학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독교윤리학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먼저는 존재(to be)의 문제이며 다음은 행동(to do)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요구하시는 바를 기독교윤리학은 검토한다. 전자의 존재와 직설법(indicative)의 문제는 덕(virtue)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며, 후자의 행동과 명령법(imperative)의 문제는 규범(norm)과 규칙(rule)에 대한 질문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윤리학은 분명한 학문적 주제를 갖는다. 신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윤리학도 보편적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윤리

7) James Moody Gustafson, *Can Ethics Be Christ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179.

학은 나름의 연구방법론을 장착하고 있다. 기독교윤리학을 연구하는 학문적 서클도 작지 않다. 또한 기독교윤리학의 논거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2. “기독교”윤리학이 공적인 장에서 통용되기 위한 노력

교회 내와 교회 밖의 윤리적 논의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여러 대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⁸⁾ 이 같은 교회 안과 밖 사이의 윤리적 합의를 추구하는 대안들 중,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가톨릭 측에서 강조되어 왔던 자연법(natural law) 이론을 들 수 있다. 가톨릭은 개신교와는 다르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이성과 양심의 잔재가 있어, 그러한 자연인과 신앙을 통해 거듭난 기독교인들 사이에 연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같은 이성과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양측 사이의 보편적 윤리관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가톨릭의 자연법 이론과 같이,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윤리는 성경이 언급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물론 가톨릭 교리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의거한 자연법이 그 자체로서는 유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법으로서의 성경의 법에 의해 조명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게 된다고 말하기는 한다.

자연법을 통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윤리적 합의의 도출이 가능하려면, 자연인의 실천이성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보장받아야 한다.

8) 그러한 대안들로 자연법을 통한 논의, 일반은총에 의한 논의 및 성령론적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137~151 참조.

자연인은 실천이성의 본질적인 윤리적 통찰(substantive ethical insight)을 통해, 합리적인 보편가능성(rational universalizability)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⁹⁾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는 바 없이, 현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윤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연인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칸트(I. Kant)적인 자율성(autonomy)에 의거한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의 산출을 추구하는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의 입장은, 최근의 여러 윤리이론들에 의해 반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주적 성령론(cosmic pneumatology)의 입장과 일반 은총(common grace)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된 바 있는 바, 지속적인 공공의 장의 확보를 위해 신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¹⁰⁾

III.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특성

1.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윤리학(personal ethics)과 사회윤리학(social ethics)

『웨스트민스터 기독교윤리학 사전』은 개인윤리학(personal ethics)을 사회윤리학(social ethics)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¹¹⁾ 사회윤리

9) Robert Gascoigne, *The Public Foru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76.

10) 이에 대해서는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140~151을 참조하십시오.

11) 국어사전에서 윤리(ethic)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 설명된다. 윤리학(ethics)은 “인간 행위의 규범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며, 도덕의 본질, 기원, 발달, 선악의 기준 및 인간 생활과의 관계 등을 탐구한다.”고 언급한다. 윤리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윤리학은 그러한 규범의

학은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복잡한 양상들을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개인윤리학은 직접적인 인간상호간(interpersonal) 관계에서의 도덕적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에도 이 개인윤리학은 더 넓은 사회적 구조나 과정들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단지 사적이며 개인적이기만 한 윤리문제는 없기 때문이다.¹²⁾ 개인윤리학은 인간 집단(group)에 관한 윤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individual) 도덕적 행위자의 습관과 실천과 행동을 다루는 윤리이다. 개인윤리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개인 자신의 문제에 윤리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이다.¹³⁾

이에 비해 사회윤리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회윤리학은 개인윤리학과 달리 정부나 경제생활, 그리고 국제정치학과 같은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구조, 사회과정,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들을 다룬다. 물론 어느 윤리도 사회적인 윤리가 아닌 것은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동시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회윤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윤리학과 인간상호간 윤리학 및 사회윤리학의 영역을 확연히 구별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된다. 예를 들어 성윤리의 문제를 살펴보자. 성윤리는 얼핏 보면 사회윤리학이기보다는 인간 상호간의 윤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성윤리는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사적인 차원으로만 환원할 수 없

근거, 적합성 등을 따져 묻는 학문이다. 하지만 윤리학의 준말로서 윤리가 사용될 때도 있다. ‘윤리’를 더욱 학문적으로 반성한 것이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http://www.kcm.kr/dic_view.php?nid=38886 (2009. 11. 2) 참조.

12)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468~469, “Personal Ethics.”

13) Stanley J. Grenz and Jay T. Smith, *Pocket Dictionary of Ethic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88, “Personal Ethics.”

다. 사회적인 맥락은 그의 도덕성 형성과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별히 한 집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갖게 된다. 이 같은 사회윤리는 사회제도의 바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수단 및 공동선의 본성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¹⁴⁾

개인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개인의 행위, 동기, 목적, 수단, 관점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규범화하는 것인 반면, 사회윤리학은 사회, 즉 제도화된 구조를 윤리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개인윤리학의 판단범주는 개인의 행위와 그 동기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이지만, 사회윤리학의 판단범주는 제도가 구조적으로 정의로운가 아니면 부정의한가이다.¹⁵⁾ 사회윤리학은 사람들 상호간에 함께 처리하여야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영역이며, 개인윤리학은 각자의 삶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영역이다.¹⁶⁾

사회윤리학은 개인윤리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독특한 주제들을 포함한다. 사회윤리(Sozialethik)나 사회론(Soziallehre)은 사회에 대한 개인적 결단들이나 도덕적 행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 자체의 체제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보장, 산업과 그것의 집중의 문제, 도시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논의 등 개인적인 윤리로는 파악될 수 없는 사회구조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윤리학적 논의들이 개인적 결단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논의 대상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같은 사회윤리학과 사회론은 특별히 집단과 집단의 관계, 즉 사회의 제도적 질서들을 통해 매개되는 관계들의 문제를

14)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592, "Social Ethics."

15)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서울: 분도출판사, 2009), 32~33.

16) 정원규, 「현대사회와 윤리개념의 분화」, 『철학연구』 제59집, 9.

취급한다.¹⁷⁾ 사회윤리학은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그 구조를 변혁하며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집합적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윤리학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윤리학은 오늘과 같은 이익사회 곧 집단의 이익이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윤리학적 논의를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의 빈곤문제, 정치문제, 환경문제 등은 개인의 윤리적 능력에 관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role)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사회제도적 입장에서 노력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사회윤리학의 문제가 개인윤리학의 문제로 모두 환원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사회를 단순한 개인의 집합이나 개인 간 상호작용의 총체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행동이 개선되면 사회가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무모하다 못해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윤리 문제를 사회윤리학의 문제만으로 파악하려는 것도 어려움을 낳는다. 그럴 경우 개인의 책임은 없어지고 모두 사회 제도의 문제만으로 미뤄지게 된다. 개인의 잘못된 행위의 동기를 사회적 관계나 구조의 탓만으로 돌릴 때, 개인의 도덕적 주체성과 책임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개인의 행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개인윤리학의 관점은 무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옳바르지 않다.

2.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특성

가톨릭에 있어 도덕신학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 그리고 사회윤리학은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에 이르러 신학에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¹⁹⁾ 개신교회에 있어서도 기독교 사회윤리학이 20세기에 이르러 산업

17) H. H. 슈라이 저, 손규태 역, 『개신교사회학입문』(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25.

18)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34~35.

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야기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전의 기독교윤리학은 사회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구조화되어 기능하는 사회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였던 반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는바, 이전의 신학적 내용과는 다른 측면의 논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윤리학으로의 발전은 미국의 기독교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²⁰⁾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외팅엔(A. U. Öttingen)과 개신교 사회윤리학자 벤틀란트(Heinz-Dietrich Wendland)²¹⁾ 및 해방신학자들을 위시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오히려 일반윤리학에선 아직도 사회윤리학이란 개념이 확실히 분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²²⁾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윤리학이 사회윤리학의 발전을 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분야를 초기에 소개한 학자들은 기독교윤리학자였다. 고범서 총장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1979)와 양건 교수의 『사회윤리』(1990) 등은 이런 사회윤리학의 초기 연구들을 반영하는 책들이다.²³⁾ 기독교의 인간관과 사회에 대한 종교적인 태도는 사

19)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7, 13.

20) 개인윤리학과 사회윤리학의 분화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를 들 수 있다. Reinhold Niebuhr 저,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서울: 문예출판사, 1995)은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니버는 개인윤리를 “개인도덕”(individual morality)으로 그 책에서 지칭하고 있다.

21) Heinz-Dietrich Wendland, *Einführung in die Sozialethik*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71). 특히 벤틀란트는 사회윤리학의 범주 속에 개인윤리학을 포함시키려고 한 바 있다.

22) 박병기 편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윤리학』(서울: 인간사랑, 1994), 54~55.

23)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양건, 『사회윤리』(서울: 박영사, 1990). 고범서 총장의 사회윤리에 대한 논의들이 나온 후 한참 후에 한국철학회가 1989년에 “사회윤리의 철학적 조명”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 철학계에서 사회윤리학 운동을 주도한 학자들로는 서울대의 황경식 교수와 진교훈 교수를 들 수 있다. 진교훈 교수는 가톨릭 신자로 그리스도교 사회론의 입장을 상당히 추종하였다.

회윤리학의 탐구에 보다 유리한 전망을 주는 것임을 이러한 지난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앞에서 개인윤리학과 구별되는 사회윤리학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독교 윤리학이 학문적이라면, 그것의 하위개념인 기독교 사회윤리학도 학문성을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그 같은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기독교” 사회윤리학은 사회윤리학의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본 되는 규범에 따라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 가톨릭은 이에 연관된 몇 가지의 용어를 구별하는 바, 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톨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도덕신학은 개인윤리를 의미하며, 윤리신학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 기초 도덕신학 : 도덕의 토대를 성찰한다. 양심, 양심에 따른 덕행, 규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진행된다.
- 개인윤리 : 개인의 행위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개인의 행위, 행위 동기, 생각과 태도 등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규범화한다.
- 개인들 사이의 윤리 : 사회의 일차적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 사회윤리 : “사회제도에 관한 윤리”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에 대해 윤리적으로 성찰한다. 이 사회윤리는 일반 사회윤리와 특수 사회윤리로 구분되는데, 일반 사회윤리에선 사회윤리의 토대로서의 인간학과 가톨릭 사회론이 취급되며, 특수 사회윤리에선 인권, 경제윤리, 정치윤리, 의학윤리, 환경윤리 등의 특정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윤리적 논의들이 다루어진다.²⁴⁾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그리스도교 사회윤리는 각 시대의 상황에서 필요한 기독교적인 사회 규범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학문이다. 다음으로 이 학문은 학제적 연구를 중시한다. 특히 성서신학과 교회 전통 사상의 가르침,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지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사회윤리는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실천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²⁵⁾

IV.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위

1.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잡한 환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이전 한국 사회윤리 사상을 선도하였던 기독교 사회윤리적 논의들이 최근 들어서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종교적 구성이 이런 결과를 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실제적 책임이 작은 것이 아니다. 근래 들어 한 기독교 시민단체가 펼쳤던 문화에 대한 주장들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에는 나이브한 것으로서 오래 가지 못해 도태되고 말았었다. 최근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그렇다. 기독교계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였으나, 이미 사회에 선 존엄사에 대해 구체적인 법제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예전 시험관 야기의 문제로 기독교계가 발끈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선 기독교인들도 불임시술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정치외교문제, 경

24)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10~11. 최근에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과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이란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 두 용어는 이론윤리학에 상대되는 개념들이다. 반면 사회윤리학은 개인윤리학에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5)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18~19.

제문제 등에 대한 설교단에서와 기독교계 내의 많은 언급들이 성찰이 부족한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회가 사회에 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새로운 변화에 대해 움츠러들고 반대하는 것이었는바, 그런 담론적 수준을 가지고는 오늘의 사회를 이끌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교회는 개인윤리적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 및 사회변혁의 문제를 선도해나가는 사회윤리적 실력을 구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그의 옥중서간에서 변화된 세계의 특징을 “성숙한 세계의 자율성”(die müntige Autonomie der Welt)라고 불렀다.²⁶⁾ 교회의 계도와 신학에서 자유로워진 세계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더 이상 기독교윤리학과 신학의 계도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이 된 사회의 복잡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사회엔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취급할 수도 없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사회구조나 정책 및 각 영역의 사회정의에 대해 탐구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계가 이전의 지도력으로 사회에 대한 이런 저런 말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에 있어 교회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만을 다루지, 사회 문화적이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인가라는 주장들도 있었다. 그와 같은 퇴행적 길을 걷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다. 교회가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지도할 책임을 여전히 갖는다는 것이다.

26)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Guetersloher Verlagshaus, 1996), 215f.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적인 수준을 넘어서 사회정책적인 측면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는 아직 한국교회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간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체계를 세우는 일에도 힘겨웠던 세월이었다. 사회를 향해 방향을 지적해줄 만큼 충분한 실력이 확보되지 못하였었다.

이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 분야의 전문적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며 연구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차제에 한국기독교사회윤리 학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에 대해 한국교회가 기대하는 바도 적지 않다. 신학자들 그룹의 연구 인력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긴요한 것은 기독교 사회윤리학이 사회과학의 논의들과 조우하는 것이다.²⁷⁾ 그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평신도 전문가들과 신학자들이 연대를 의미한다.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전망을 사회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며, 사회분야의 전문가들은 신학자들에게 그 전문분야의 논점들을 설명해주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실속 있는 논의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들은 신학자 개인의 노력으로 실효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단과 전 개신교회 차원에서 일구어 내야할 일 들인 것이다. 신자로서의 경제학자나, 사회복지 전문가, 일반 윤리학자 등이 기독교적인 입장을 대변하며 자신의 분야의 문제들에 발언하는 내용들 도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전망과 무관한 것들이 상당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서의 기독교인들이 자만하여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말들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에 기독교계 의 전문가들도 신학자들의 조언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문제 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상당한 신학적

27) 윈터(Gibson Winter), 호네커(Martin Honecker) 등은 기독교윤리학의 판단근거로 사회과학의 객관적 분석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충구, 「기독교 사회윤리와 한국 토착화신학」, 『기독교사상』, 1991. 6, 112.

통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학자들과 사회문제 전문가들의 서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적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구상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의 한국적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 ① 주변의 비 기독교인들과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 ② 서구와 다른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형성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③ 교단 간의 서로 분기된 신학적 입장과 의견들을 하나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④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1) 주변의 비 기독교인들과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오늘과 같이 윤리적인 내용들이 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공동체의 주장을 전체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사회윤리적 규범들을 불교신자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엔 무리가 있게 된다. 이러한 한계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로 간의 규범적 최소공약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서로 간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을 사회적 규범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사상해버리는 방안이다. 서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느슨한 규범만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²⁸⁾ 한국에서 기

www.kci.go.kr

28) 정원규, 『현대사회와 윤리개념의 분화』, 253ff.

독교인이 차지하는 수적 비중이 서구가 갖지 않음을 언제나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구교회의 사회친화도와 우리 교회의 사회친화도가 같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서구의 사회윤리학은 서구교회와 서구신학의 영향 하에서 전개된 것으로서, 교회와 사회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윤리적 사고의 패턴은 대부분 유교문화와 불교문화에서 숙성된 것이다. 이에 기독교신학과 사회적 사상의 친밀도에 있어 서구와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구에선 교회가 사회문제를 다루는 데에 큰 저항감이 없겠지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전체 인구의 20%도 못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문제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재단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한국교회는 최근 들어 많이 경험하였다.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참여하였던 사학법 개정의 문제,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 문제, 뉴라이트의 일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거리 집회 등이 기독교인의 시각에선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선 역겨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서구와 다른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형성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가 사회문제를 다루는 내용 그대로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면 서구사회의 그것과 같은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선 상치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낙태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그렇다. 한국사회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서구와 같지 않다. 여성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들이 비밀비

재하다. 이런 측면에서 낙태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남아선호 사상도 낙태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사회만의 특정한 정황을 이해함이 없이 낙태에 대한 서구사회의 이해를 그대로 대입하려는 것엔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은 상당부분 서구의 사회적 상황과 신학적 바탕에서 배태된 것이다. 서구의 기독교 사회윤리 사상들은 서구의 사회적 환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교단 간의 서로 분기된 신학적 입장과 의견들을 하나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의 문제는 우리가 전수받은 서구의 신학적 전통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칼빈의 신학과 루터의 신학, 그리고 웨슬리의 신학적 전통 및 해방신학 등의 전통들은 서로 다른 면이 적지 않다.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전망에서 사회문제를 다룰 때에 나오는 결과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각의 교리들에 근거한 다양한 교파의 분열은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어떤 사회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교단들의 견해가 서로 같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극적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주의 교회와 진보주의 교회의 입장이 같지 않았는데, 그것은 기본 되는 교리적 차이가 야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열된 교파적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윤리적인 이슈들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당연한 일인 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한국적 전개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개에 전제되는 한국적 신학의 통일된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한국적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사회윤리의 방법론적 구상은 노영상의 책, 『기독교 사회윤리 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방법론을 사회적 분석(social analysis)－성서적 신학적 반성(bibl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목회적 사회적 실천(ministerial and social practice)－피드백(feedback)의 순으로 언급하는바 크게는 해석학적 입장을 따르고 있다.²⁹⁾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전제하는 것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윤리적 담론들을 요청하는 것이다.

V. 결론: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에 대한 학문적 정위를 위한 개념 정의

마지막으로 이 글의 목적이었던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이에 대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할 수 있었다.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란 무엇이며 그 학문이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가 이 정의를 통해 검토하려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에

29) 노영상, 『기독교 사회윤리 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47~51에선 가톨릭의 사회윤리 방법론이 소개되는 바, 관찰(observation)－판단(judgement)－실천(practice)의 세 단계로 설명되었다. 노영상의 기독교 사회윤리 방법론과 비근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대한 학문적 정의(definition)를 내리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필수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성(scholarship)을 견지함 (6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
-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제안
- 개인윤리의 차원과는 다른 사회윤리적 요청에 대한 이해 및 이 같은 사회윤리를 개인윤리(personal ethics)의 차원에서 다시 구현할 방안 에 대한 검토
-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의 개인과 집단과 체계의 역할 강조
- 사회구조 및 사회제도 그리고 사회정책(social policy)적인 측면들이 반영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 들에 착목함
-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학적 사회윤리학(theological social ethics)의 정립 : 성경과 교리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개
- 여러 개신교 교단 간의 교리적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의견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교리신학적 바탕과 합의(consensus)를 이루는 방안 에 대한 모색
- 한국사회에서 20% 정도를 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밖의 사람 들과의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공공신학(public theology)과 공동도덕(common morality)에의 요청
- 사회과학적인 도움을 통해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정황에 대한 사회적 분석(social analysis)을 추구
- 서구의 기독교 사회윤리적 논의들로 처방될 수 없는 많은 한국적인

사회문제의 독특성이 있음을 인식

- 한국적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정립을 위해 많은 연구 집단(research group)들이 요청되며 이들을 통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집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강조

위와 같은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에 대한 정의에 소용되는 요건들을 종합하여, 필자는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란 나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먼저 서구사회와 다른 한국사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며, 한국적 입장에서 일관되게 정리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개인윤리의 영역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와 제도들의 개선과 사회정의의 실현 및 사회변혁에 대해,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성경과 교리적 전통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나뉠의 사회윤리적 실천들에 대해 탐구하며, 이에 대해 우선은 다른 교단의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목회적이며 사회적인 실천을 책임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러한 실천의 이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바, 일군의 전문적인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앙과 합리성의 양면을 겸비한 학문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 노영상, 『기독교 사회윤리 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 _____, 『미래교회와 미래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 라인 홀드니버 저,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서울: 문예출판사, 1995).
- 박병기 편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윤리학』(서울: 인간사랑, 1994).
- 박충구, 「기독교 사회윤리와 한국토착화신학」, 『기독교사상』, 1991. 6.
- 슈라이, H. H 저, 손규태 역, 『개신교사회학입문』(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서울: 분도출판사, 2009).
- 양건, 『사회윤리』(서울: 박영사, 1990).
- 정원규, 「현대사회와 윤리개념의 분화」, 『철학연구』 제59집.
- Bonhoeffer, Dietrich. *Widerstand und Ergebung*. Guetersloher Verlagshaus, 1996.
- Childress, James F. and Macquarrie, John,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Gascoigne, Robert. *The Public Foru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Grenz, Stanley J. and Smith, Jay T. *Pocket Dictionary of Ethic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Gustafson, James Moody. *Can Ethics Be Christ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 McClendon, James Wm. Jr. *Systematic Theology: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McGrath, Alister E. *Science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9.
- Pannenberg, Wolfhard.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rans. by

Francis McDonag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Stob, Henry. *Ethical Refle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8.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Tracy, David. *Bl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Wendland, Heinz-Dietrich. *Einführung in die Sozialethik*.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71.

http://www.kcm.kr/dic_view.php?nid=38886 (2009. 11. 2.)

논문투고일 : 2009. 10. 31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1. 23

• 국 문 초 록 •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개념을 정의하며 그 학문을 정위 시키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학문성의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학문성의 여섯 개의 조건에 대해 설명한 다음, 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이 그런 학문성의 조건을 만족시킴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미국의 기독교윤리학자 제임스 거스탑슨(James M. Gustafson)의 윤리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여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세 번째로 본 논문은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의 영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를 규명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고찰을 거쳐, 필자는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 개념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란 나름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먼저 서구사회와 다른 한국사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며, 한국적 입장에서 일관되게 정리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개인윤리의 영역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와 제도들의 개선과 사회정의의 실현 및 사회변혁에 대해,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성경과 교리적 전통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나름의 사회윤리적 실천들에 대해 탐구하며, 이에 대해 우선은 다른 교단의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목회적이며 사회적인 실천을 책임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러한 실천의 이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바, 일군의 전문적인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앙과 합리성의 양면을 겸비한 학문을 의미한다.”

주제어 :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 개인윤리학, 사회윤리학, 학문성, 기독교 사회윤리학 방법론